

인간 성기관의 존재목적으로 본 성윤리 기준*

- 통일사상**의 시각으로 -

문 상 희

선문대학교

〈요 약〉

이 논문의 목적은 현대사회의 성윤리 해석의 문제를 살펴보고 그 한계점을 찾아서 사회의 성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성의 윤리적 기준을 설정하여 성행위의 허용 가능한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 글은 통일사상적 시각에서 논의된다는 전제에서 성윤리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성윤리기준을 도출하기 위해서 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남녀의 성을 표상하는 인체기관의 대표기관인 성기관의 존재목적이 무엇인가를 성찰하였다. 현대사회의 성윤리는 ‘출산, 쾌락, 사랑’의 세 가지 성적 가치를 중심으로 사회구성원들이 지키고 따라갈 수 있는 ‘책임과 존중’의 성윤리 기준을 제시하면서 동성애든지 혼전 성이든지 서로 ‘책임과 존중’이 있으면 어떠한 성행위나 성관계라도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하다는 입장에 있다. 그러나 ‘책임과 존중’만을 강조할 때 생기는 한계점들이 있어서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새로운 성윤리기준을 모색하였다.

인간의 성은 원존재의 확대된 자아로서, 인간의 성기관의 구조와 그 작용으로 보아 성기관의 존재목적인 ‘사랑완성, 자녀출산, 혈통보존, 양심작용’의 네 가지의 보편적 가치를 이루어야 한다는 윤리적 기준을 도출하게 되었다. 사회구성원들은 성기관의 존재목적, 네 가지, ‘사랑완성, 자녀출산, 혈통보존, 양심작용’을 이루기 위해 혼전순결과 혼후 정절을 토대로 성행위나 성관계에 대한

* 이 연구는 2008학년도 선문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 통일사상이란 하나님주의, 또는 두익(頭翼)사상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주의란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핵심으로 하는 사상을 말하며, 두익사상이란 우익도 아니요, 좌익도 아닌 더 높은 차원에서 양자를 포용하는 사상을 말한다. 통일사상은 하나님아래 인류대가족주의이념을 실현함과 아울러 인류의 난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사상이라고 말한다. 통일사상은 문선명 선생의 사상이며 이상헌 선생이 철학적 체계로서 1973년에 정리하여 『통일사상요강』의 표제하에 출판되었다(통일사상요강, 서문에서).

성윤리적 기준을 중심한 성윤리 태도를 가져야한다고 논의하였다. 성윤리기준을 중심한 성윤리적 태도는 개개인의 인격 안에서 사랑, 생명, 혈통, 양심작용이 균형, 조화, 통일로서 구현하는 것이다.

핵심 주제어: 성윤리기준, 사랑, 생명, 혈통, 양심, 성기관의 존재목적, 책임과 존중. 순결

I. 서 언

오늘 우리사회의 성적 문란현상은 사회전체를 병들게 할 만큼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이혼율의 증가, 기성세대의 성적일탈, 음란물의 유통, 성의 상품화에 의한 청소년들의 성매매, 초등, 중등학생들의 집단성폭력, 미혼모와 낙태의 급증, 등의 현상은 우리사회 기성세대와 자녀세대의 성적 일탈의 만연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성문란에 대한 분석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분분(紛紛)하다. 전통적 성윤리를 주장하고 있는 경우는 서구의 성혁명에 의한 무분별한 성개방 풍조의 영향을 그 원인으로 보고 성윤리를 강화할 것을 주장한다.¹⁾ 이에 반해서 자유주의자들은 성의 일탈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자유로운 성의 확대현상의 부작용 정도로 여기며 오히려 성적 향락을 더욱 주장하고 있다. 그중에서 급진주의자들은 도덕으로부터 성의 완전 해방을 외치고 있다.²⁾

전통적 성윤리의 주장이나 급진적 성해방론의 성윤리폐지론은 성문제를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 전통적 성윤리는 성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 성윤리를 성적억압을 조장하는 굴레로 여기는 자들에게 성생활을 지도하는 성규범으로서의 구속력을 상실해가고 있다. 한편 성을 단순히 사적인 자유문제로 간주하여 성을 윤리적 치외법권으로 설정하는 성해방론은 성의 무질서와 방종을 조장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개인의 성행위나 성관계가 사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가정과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윤리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성은 ‘성이 무엇인가, 성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하나’라는 질문과 직결되어 있는 윤리적 문제이다. 성은 인격의 표현이며, 가정과 사회질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성의 일탈행위는 가정 붕괴와 사회무질서의 혼란을 야기(惹起)한다. 성이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윤리적 규제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여 성적인 방종으로 이어진다면 가정파괴와 사회적 혼란을 바로잡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사회의 성윤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올바른 성의식과

1) 류지한, 『성윤리』 (서울: 울력, 2002), 10쪽.

2) 박찬구, 『성적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서울: 담론사, 1997), 78쪽.

성행동을 지도할 수 있는 성윤리의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다. 건강한 가정과 사회질서를 이루기 위해서 사회성원대다수가 보편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성윤리의 기준³⁾을 세워서 개개인이 건전한 성의식과 성태도로서 성의 목적을 이루어 살아가는 윤리적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성윤리적 삶의 자세를 위해서 남녀의 성을 표상하는 인체기관의 대표기관인 성기관의 존재목적이 무엇인가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현대사회의 성윤리 해석의 문제를 분석하고 그 한계점을 지적하여 사회의 성원 누구를 막론하고 수용할 수 있는 성의 윤리적 기준을 설정하여 성행위의 허용 가능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통일사상적 시각에서 성윤리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전제에서 논의하게 된다.

II. 성(性)이 무엇인가?

성윤리의 기준을 논의하기에 앞서 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성의 의미를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먼저 남녀의 성별을 구분하는 신체적, 생리적 작용의 특징에 따라 생물학적 신체구조와 그 기능의 측면을 의미하는 자연적 성, 혹은 생물학적 성(sex)이라고 한다. 둘째로 사회, 문화적 성(gender)으로서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성역할과 성차를 나타내는 의미가 있다. 셋째는 가장 포괄적인 의미로서 생물학적 성과 사회문화적 성을 포함하는 전인격적인 성(sexuality)을 말하고 있다.⁴⁾ 그러나 본 연구자가 논의하고자 하는 성개념은 통일사상적 시각에서 말하고자 한다.

1. 성개념(性概念)

종래의 성개념은 철학적 뿌리가 인본주의철학에 입각한 성이라면 통일사상에 의한 성은 상사(相似)의 법칙⁵⁾에 의한 원존재(原存在)⁶⁾를 닮은 성으로서 이해한다. 인간의 성은

3) 가장 이상적 모델성은 원존재에서 도출되었으므로 윤리적 기준, 역시 원존재로부터 도출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사회성원들 가운데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성원들은 원존재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이상적, 모델 성의 윤리기준을 수용하기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 자신의 신체구조와 관련된 작용과 그 목적, 그리고 그 존재 방식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인간 성기관의 존재구조가 사랑, 생명, 혈통, 양심의 작용을 하는 구조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려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간은 생득적으로 그렇게 구조되어 있는 성기관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작용을 거부하려 할 수 없는 것이다. 필자는 인간의 성기관의 구조가 왜 그러한 작용을 하게 되었는가 그 근거와 출처를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다는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4) 김상원, 『성교육 / 성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출판사, 1999), 32쪽.

5)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 (통일사상연구원, 1993), 168쪽. 통일사상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 지음 받았으며, 모든 존재는 닮기 법칙에 의해서 존재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닮기 법칙을 ‘相似의 법칙’이라고 설명 한다. 창조본연의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을 닮은 부자(父子)관계로서 유전적 자연의 법칙에 따라 남녀의 생물학적 특성으로 태어나서 사회, 문화, 교육적으로 학습되어진 가치법칙에 따라 삶을 영위하는 인격적인 존재로서 이해할 수 있다.⁷⁾

통일사상으로 본 성개념이 종래의 성이해와 다른 점은 인간의 성은 원존재를 닮아서 태어난 부자관계의 자녀로서의 성이라는 것이다. 인간이 원존재를 닮았다는 것은 창조과정에서 적용되는 닮기 법칙에 따른 하나님의 결과적, 대상적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성은 하나님의 확장된 자아라는 의미이며, 원존재와 하나 된 부자관계의 혈연관계요, 참사랑의⁸⁾ 관계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통일사상에서 보는 성개념은 종래의 성의미가 지니고 있는 성윤리문제해결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다. 성윤리문제의 중심대상은 비록 생물학적, 사회문화적 성이 포함되지만 성욕망에 관한 것이다. 성욕을 표현하고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행위나 성관계가 성윤리의 중심대상이 되는 것이다. 왜냐면 성욕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갖는가는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는 윤리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기존의 성욕에 대한 이해는 인간자신을 중심한 성욕구의 표출로서 자신의 성욕망의 테두리 안에서 비윤리적 성욕구를 표출할 수 있으나 통일사상적 시각의 성욕구 이해는 원존재를 실망시키는 비윤리적인 성적 욕망을 표현할 수 없게 된다. 왜냐면 인간은 원존재를 닮은 부자관계로서 원존재의 확대된 자아이기 때문에 참사랑과 혈연으로 하나 되어 묶여진 관계이기 때문이다. 참사랑의 힘은 타(他)인격과 함께, 하나 되게 하는 경험을 제공하므로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가 함께 기쁨과 고통을 느끼는 관계이다. 참사랑의 힘은 인격완성을 위한 핵의 역할을 하며, 인간의 성을 윤리적 성으로 만드는 필요 충분한 조건이다.⁹⁾ 참사랑의미 안에 윤리적 실천의 내용을 지니고 있으므로 참사랑 중심한 인간의 성은 비인간화 효과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 따라서 통일사상에 의한 성욕구 이해는 성윤리를 벗어날 수 없으며, 성윤리 안에서 성행위나 성관계가 가능한 것이다.

같다는 것이다. 자연세계 역시 ‘상사 법칙’에 의하여 콩 심은 데서 콩이 나고 팥 심은 데서 팥이 나오게 된다. 그러나 오늘의 인간은 타락의 후예이므로 하나님의 형상과 속성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6) 여기에서 원존재란 하나님을 의미한다.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의 의미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통일사상에서 하나님을 ‘원존재’로서 표현하기도 한다.

7) 문상희, 『부모-자녀 함께 이루는 절대성』 (아산: 선문대학교, 2007), 70쪽.

8) 참사랑에서 참의 의미는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한 성질을 표현하는 것이다. 참의 근거는 원존재로부터 유래되었으며 원존재는 참사랑의 근원자이며, 그 속성이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 인간의 성은 원존재가 확장된 자아이기 때문에 인간과 원존재와의 사랑관계는 당연히 참사랑관계인 것이다. 따라서 주체와 대상관계에서 하나님의 대상의 위치에 있는 인간의 사랑 역시 참사랑이며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한 속성을 지니게 된다.

9) Mappes, Thomas A and Zembaty, Jane S. *Social Ethics: Morality and social policy*, 3rd ed., (New York: McGraw-Hill, Inc.1992), 232.

2. 성의 구성요소

성개념이 종래의 그 의미와 차별성이 있으므로 그에 따라 성의 구성요소도 기존의 성교육자들이 보는 견해와 차이가 있다. 성교육자들, 김상원(1999),¹⁰⁾ 윤가현(2002),¹¹⁾ 이순열(2000),¹²⁾ 등은 성의 구성요소를 ‘사랑, 생명, 쾌락’의 3대 요소로 보고 있다. 그러나 통일사상적 시각으로 보는 인간의 성은 ‘마음, 몸, 관계, 법칙’의 네 가지 요소들이 모여서 각기 다른 기능을 하면서 유기적 관계로서 떼려야 뗄 수 없는 통합된 요소들로서 구성되어있다.

인간의 성의 네 가지 구성요소의 근거는 원존재로부터 유래한다. 통일사상에 의하면 원존재는 성상(인간의 마음과 같은 요소)과 형상(인간의 몸과 같은 요소)의 통일체로 존재하며, 양성(인간의 경우는 남성의 실체에 해당)과 음성(인간의 경우 여성의 실체에 해당)의 중화적 실체로서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¹³⁾ 인간의 성이 원존재의 확장으로서의 성이므로 인간의 성의 구성요소는 원존재를 닮아서 ‘마음, 몸, 관계, 법칙’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통일사상은 인간이 개성진리체로서 유일무이(唯一無二)한 개성을 가진 진리적 존재이면서, 종적 횡적으로 연결된 ‘관계’로서 존재하는 연체(聯體)라고 설명한다. 연체의 의미는 가정에서 부자관계, 부부관계, 자녀관계, 형제자매관계의 네 가지 기본 가족관계로 서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가족이 확대되어 친족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가족이나 친족 외의 공동체사회에서는 친구관계, 동료관계, 상하관계, 등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인간이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성은 ‘관계’를 떠난 성을 말 할 수 없다.

성의 구성요소 가운데 ‘법칙’의 요소 역시 원존재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통일사상은 원존재가 로고스¹⁴⁾적 존재이므로 인간 역시 원존재를 닮아서 로고스적 존재라고 말한다. 인간은 자유의지에 따라서 로고스, 즉 이성과 법칙에 따라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우주는 자연법칙에 따라서 운행되고 인간의 신체 역시 자연의 법칙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마음은 가치법칙 즉 규범에 따라서 질서를 유지하며 살아가도록 되어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존재세계에서 인간만이 가치법칙, 즉 규범에 따라 질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 규범¹⁵⁾은 일반적인 전통적 윤리에서 말하는 사회적 규범과 구별이 되며,

10) 김상원, 『성교육 / 성상담의 이론과 실제』 27쪽.

11) 윤가현, 『성심리학』 (서울: 성원사, 1990), 125쪽.

12) 이순열·배병주, 『중학생을 위한 올바른 성』 (도서출판, 한빛, 2000), 2쪽.

13)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 (서울: 성화사, 1993), 30-53쪽 참조.

14)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 64-73쪽 참조. 로고스를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 구상, 사고를 뜻하며, 로고스를 이법이라고도 설명하는데 그 이법은 이성과 법칙을 말한다. 만물을 창조한 로고스의 일부인 이성인 인간의 이성과는 차원이 다르다. 인간의 이성은 자유성을 지닌 지적능력인 동시에 개념화의 능력, 또는 보편적 진리추구의 능력이다. 로고스의 또 하나의 측면은 법칙이며 때와 장소를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나 똑같이 나타나는 규칙적인 현상이 법칙이다. 이성과 법칙의 통일로서의 로고스에 의해서 인간이 창조되었으므로 인간에게 이성적 요소와 법칙적 요소가 함께 통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대, 사상, 문화를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인간이 지켜야 할 “마땅히 해야 할 것” 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으로 규정하고 있다.¹⁶⁾

인간의 성의 네 가지 구성요소들은 각기 고유의 작용을 하면서 동시에 작용하여 서로 균형을 이루고 조화와 통합을 이루면서 ‘사랑, 생명, 혈통, 양심’의 작용으로 나타나게 된다.¹⁷⁾ 다시 말해서 개개인의 성은 자신 안에서 ‘마음, 몸, 관계, 법칙’의 구성요소에 의해 ‘사랑, 생명, 혈통, 양심’의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개개인은 부모의 참사랑의 열매로서 태어난 결과적, 대상적 자녀로서 혈통적, 종적으로 연결되어있는 존재이면서 독립된 존재로서 횡적으로 형제자매관계, 그리고 결혼한 후에 부부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관계는 자연법칙과 가치법칙에 따라서 균형, 조화,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즉 인간의 성은 자신의 부모의 성이 확대되어 나타난 성으로서 ‘마음, 몸, 관계, 법칙’의 구성요소들이 각기 자연법칙과 가치법칙에 따라 ‘사랑, 생명, 혈통, 양심’의 작용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자신의 성 안에서 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네 가지 구성요소들 가운데 ‘마음’의 작용은 지, 정, 의, 사랑의 다양한 작용이 있으나 대표적 작용은 ‘사랑’이며¹⁸⁾, ‘몸’의 작용의 대표적 작용은 생리, 생식작용을 대표하는 ‘생명’이다. ‘관계’로서의 작용이란 남녀가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면 생식작용을 통하여 자손이 탄생되어 ‘혈통’을 존속하게 되어 종족보존이 가능한 것이다. ‘법칙’의 작용은 마음의 나침반으로서의 ‘양심’이 이성에 의해 법칙에 따르도록 안내하고 자극한다.¹⁹⁾ 기차가 철로를 따라서 운행하듯이 이성에 의해서 양심은 법칙에 따라 작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성의

15) 통일사상은 우주의 존재세계에 자연법칙과 가치법칙이 작용하고 있는데 인간의 마음에 적용되는 법칙은 가치법칙이며 이 가치법칙을 규범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가치법칙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은 수수(授受)법칙을 말하며 수수법칙을 전제로 상대를 위하고 전체를 위하는 법칙과 격위적 법칙을 규범의 기본 패턴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규범을 개인적, 종적, 횡적 규범으로 분류하며 규범이 인간관계에서 덕목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개인적 덕목은 정직, 정의, 절제, 용기, 지혜, 극기, 인내, 자립, 공정, 근면, 청결, 순결, 등이 있으며, 종적 덕목으로는 효, 충성, 자애, 존경, 등이 있으며, 횡적 덕목으로는 화해, 관용, 의리, 신의, 예의, 협동, 봉사, 동정 등이 있다.

16) 통일사상요강의 교육론에서 설명하는 규범은 개별적, 종적, 횡적 규범으로서 그 영역을 나누어서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과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규정하여 시대, 종교, 사상, 국경을 초월한 행위의 규범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17) 문상희, 『부모-자녀 함께 이루는 절대성』, 2007. 73쪽.

18) 통일사상은 하나님이 심정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할 수밖에 없었다는 창조의 심정적 동기설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동기는 사랑이며 사랑으로 인간과 부자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역시 하나님을 닮아서 심정적 존재이므로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도록 그렇게 구조되어 있는 것이다. 사랑은 지, 정, 의의 원천이며 사랑을 중시하고 지, 정, 의가 균형을 이루어 발달할 수 있다. 사랑은 인격의 핵심이자 토대가 된다. 그러므로 인간 마음 작용의 대표적 기능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19) 인간은 원존재를 닮아 로고스적 존재이므로 이성과 법칙에 의해서 질서를 유지하며 살아가지만 이성의 작용이 법칙의 작용보다 훨씬 크게 작용한다. 그러나 자연세계의 존재들은 저급한 단계로 내려갈수록 법칙의 작용이 더욱 크게 작용한다.

4대 구성요소인 ‘마음, 몸, 관계, 법칙’이 각기 동시에 작용함으로써 각기 ‘사랑, 생명, 혈통, 양심’의 작용의 유기적 관계로서 균형, 조화, 통일을 이룰 수 있게 된다.

통일사상적 시각으로 본 성의 4대 구성요소, ‘마음, 몸, 관계, 법칙’에 대한 설명은 기존의 성의 3대 구성요소인 ‘사랑, 생명, 쾌락’에 대한 논의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다. 종래의 성의 구성요소로 말하고 있는 ‘사랑과 생명’은 성의 구성요소가 아니라 마음과 몸의 작용으로 설명 되어져야 한다. 위에서 논의한 바에 의하면 사랑은 마음의 대표적 작용이요, 생명은 몸의 대표적 작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쾌락은 성행위나 성관계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느끼는 정서적 즐거움이나 희열의 표현으로서 성의 구성요소나 성적 작용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쾌락을 성의 구성요소로 이해하게 되면 쾌락에 탐닉하게 될 우려를 낳게 된다. 성행위나 성관계는 쾌락을 동반하는 전형적인 경험이다. 그러나 성적쾌락은 일시적 희열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더욱 강렬한 쾌감을 추구하게 되어 성행위의 목적이 성적쾌락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크다. 성적 쾌락은 절제해야 될 감성이기, 성적으로 추구하고 목적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도 감각적 쾌락에 대해 올바르게 느끼고 행동하여 절제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²⁰⁾

종래의 성교육자들은 성의 구성요소에서 양심의 작용이 따라야 할 가치법칙²¹⁾을 간과하고 있다. 성윤리에서 다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성규범이기 때문에 가치법칙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통일사상적 성의 구성요소는 성윤리의 핵심 요소인 가치법칙을 강조함으로써 종래의 성윤리문제 해결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3. 이상적 모델 性, 절대 性

일반적으로 성에 대한 윤리적 담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윤리로서 “나는 도덕적으로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추구하여 인간을 선하게 만드는 특징이나 성품, 또는 덕에 대해서 연구한다. 또 다른 하나는 칸트 윤리학과 같은 의무론과 공리주의와 같은 결과주의 또는 목적론의 의무윤리로서 “나는 도덕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와 같은 도덕적 당위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을 추구한다.²²⁾ 전자는 인간의 성적 활동을 선과 덕의 관점에서 논하여 ‘이상적 성’에 관한 담론이라고 하고, 후자는 도덕적 관점에서 논의하는 ‘도덕적 성’이라고 부른다. 윤리학자, 벨리오티(Belioty)는 ‘이상적인 성’이 도덕적 성의 의무의 요청을 훨씬 넘어서는 특별한 선을 제공한다면 ‘도덕적인 성’은 성적 활동이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제시한다고 말한다.²³⁾

20) 아리스토텔레스, 최명관 역, 『니코마스 윤리학』 (서울: 서광사, 1988), 48쪽.

21)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 367-368쪽, 통일사상의 교육론에서.

22) 에드워드 윌슨, 이한음 역, 『인간본성에 대하여』 (서울: 사이언스북스, 2000), 34쪽.

23) 레이몽 A. 벨리오티, 구승희 역, 『Good Sex: 좋은 섹스란 무엇인가?』 (서울: 민음사, 2000), 120쪽.

철학자, 헤어(Hare)는 ‘이상적인 성’을 선과 완성에 관한 보다 좋은 성으로 말하고 한편, 의무와 책무와 관련하여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에 강조를 두는 ‘도덕적 성’으로 구분하고 있다.²⁴⁾

류지한은 ‘이상적 성’ 가운데 완전주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지닌 사람은 사랑, 생명, 쾌락의 3대 구성요소를 종합적으로 온전히 실현하여 사랑, 출산, 쾌락의 가치를 최상의 형태로 구현하는 성이라고 설명한다. 한편 ‘도덕적인 성’은 도덕적으로 허용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만을 문제 삼기 때문에 ‘이상적 성’에 비해 객관성과 보편성을 확보하기 쉬워서 오늘의 다원화 추세의 성윤리는 도덕적 성 중심으로 갈 수 밖에 없다.²⁵⁾고 진술한다.

위의 성윤리 담론들이 ‘이상적 성’과 ‘도덕적 성’으로 구분하여 설명한 것은 성개념과 성의 구성요소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오는 한계성을 들어내고 있다. 통일사상적 성개념에서 논의한 바에 의하면 인간의 성은 하나님의 확장된 존재로서의 성이다. 그러므로 원존재가 참사랑의 근원자로서 이상적 성의 원천이며, 도덕적 성의 근원이기 때문에 원존재 안에서 이상적 성과 도덕적 성이 하나로서 통합되어 있듯이 인간의 성 역시 도덕적 성이 “가장 이상적 모델 성” 안에서 통합 되어야 한다. 이상적인 성과 도덕적 성을 분리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상적인 성이 되기 위해서는 도덕적, 윤리적 성이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또한 성의 구성요소에서 논의한대로 이상적 모델적인 성, 온전한 성은 성의 4대 구성요소가 동시에 각기 작용하여 ‘사랑, 생명, 혈통, 양심’의 작용에 의해 부부는 서로 부부간의 사랑을 구현하면서 자녀를 출산하여 부모가 되고, 성윤리적 가치법칙에 따라서 혈통적으로 부모, 자녀, 형제자매관계를 형성하여 가족구성원을 형성하게 된다. 즉 성의 4대 구성요소가 네 가지 작용을 통하여 구형운동²⁶⁾을 이루어서 실제적인 3대권과 4대 사랑의 영역²⁷⁾을 이루어 가족구성원이 구현되는 것을 이상적, 모델 性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인간의 이상적 모델 性은 절대 性을 이룰 때 가능한 것이다. 절대 성(性)이란 인간의 성의 절대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다. 인간의 성은 원존재의 확대된 성이기 때문에 원존재가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한 속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원존재를 닮은 인간의 성 역시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성은 절대 성(性), 유일 성(性), 불변 성(性), 영원 성(性)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절대성질은 유일, 불변, 영원의 성질이 포함되므로 속성들 중에서 대표적 성질로서 절대 性이라고 칭하는 것이다.

24) Hare, R. M, *Freedom and Reas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63). 20쪽.

25) 류지한, 『성윤리』, 43쪽.

26) 통일사상에 의하면 존재세계에서 모든 존재는 수수작용(授受作用)을 통하여 다양한 원환운동을 한다고 한다. 가정에서 종적 관계(부모와 자녀관계, 조부모와 부모관계)와 횡적관계(부부관계, 형제자매관계)가 사랑을 중심하고 각기 원환운동을 하게 될 때 시간과 각도를 달리하는 구형운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통일사상요강 204-212쪽 참조).

27) 통일사상은 인간개개인은 상중하, 전중후, 우중좌의 6방향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구형운동을 하면서 연체로서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가정에서 3대권은 조부모, 부모, 자녀로 구성된 3세대를 대표하고 4대심정권이란 부모사랑, 부부사랑, 형제자매사랑, 자녀사랑의 4가지 사랑권을 의미한다. 심정과 사랑은 안팎의 관계이므로 이 논문에서는 4대 사랑으로 표현하였다.

통일사상에서 원존재가 유일무이(唯一無二)한 존재인 것처럼 인간도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얼굴모습, 취미, 성격, 창조능력, 등이 어느 누구와도 같은 사람이 없다고 설명한다.²⁸⁾ 배우자 역시 유일무이한 존재이므로 가장 귀하고 신성한 가치를 지닌 존재인 것이다. 인간의 성을 서로 존중해야한다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절대성을 이루려면 반드시 순결의 덕목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²⁹⁾ 상대의 성을 존중한다는 의미는 배우자를 위해서 순결을 지킨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절대 성(性) 구현(具顯)의 궁극적 목적은 참사랑의 완성이다. 참사랑의 기초요, 출발점이요, 토대는 ‘배우자를 위한 순결함’이기 때문에 순결의 덕목을 구현함으로써 기다림의 정성과 신뢰감을 쌓은 터 위에서 참사랑의 완성이 가능한 것이다.

인간의 이상적 모델 성(性), 절대 성(性)은 순결덕목을 실천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성의 4대 구성요소의 작용인 ‘사랑, 생명, 혈통, 양심’의 작용이 구형운동을 할 때 이루어진다. 인간의 이상적 모델성의 구현이란 참사랑을 중심한 가정의 3대권과 4대심정권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상적 모델 性은 인류모두가 이루어야 할 궁극적 존재목적이며, 반드시 이루어 나가야 할 방향이다.

Ⅲ. 성기관의 존재목적

인간의 성을 대표하는 신체기관의 대표적 기관은 생식기이다. 모든 존재는 그 존재 목적을 가지고 있다. 존재세계의 모든 존재의 존재목적은 그 존재의 구조와 작용을 보면 목적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인체의 눈의 구조와 기능을 보면 눈의 목적은 ‘모든 사물을 보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생식기의 구조와 작용을 이해하면 생식기의 목적을 알 수 있는 것이다.³⁰⁾

먼저 생식기(生殖器)의 용어를 풀어보면 ‘생명을 담는 그릇’이라는 의미이다. 이는 생식기가 생물학적으로 단순히 남녀를 결정짓는 곳이라는 것 외에 생명과 혈통에 직결 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생식기는 몸의 중앙부위에 위치하여 남녀의 사랑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생명을 탄생시키는 곳이므로 성욕구의 표출에 대한 성행위나 성관계에서 윤리적 문제가 따르는 소중한 신성한 기관이다. 생식기의 구조를 보면 남자와 여자의 상보성과 생식기의 존재 목적을 확실히 알 수 있다.

28)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 1993, 53-57쪽.

29) 문상희, 『부모-자녀 함께 이루는 절대성』 2007, 71. 절대성의미 속에 영원히 배우자와 만의 성관계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혼전 순결과 혼후 정절이 전제되는 것이다.

30) 문상희, 『부모-자녀 함께 이루는 절대성』, 2007. 140.

1. 자녀출산

남녀의 생식기는 자녀의 출산을 위해 필요한 기관으로 되어 있다. 그 중 음경은 성적 자극을 받게 되면 혈액이 들어가 크고 단단하게 변하는데 이를 발기라고 한다. 음경이 발기되는 이유는 발기되어야 여성의 질 속으로 삽입하기가 쉽기 때문이며 음경이 밖으로 나와 있는 이유는 남자가 사정을 통해 정자를 여자의 생식기내에 깊숙이 투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정자는 낮은 온도에서 보다 건강하기 때문에 체온보다 낮도록 하기 위해서 정자를 보관하는 음낭이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이다. 남자와 달리 여자의 생식기관이 내부에 있는 까닭은 여성이 임신을 하기 위해서 정자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정자와 난자가 자궁에서 수정하고 착상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난자와 자궁은 따뜻해야 좋기 때문에 내부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생식기의 제1차 성징은 갓 태어났을 때 남자와 여자의 성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성장하여 사춘기가 될 때 제2차 성징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생리적 변화를 나타나게 하는 성호르몬 분비의 기능이 생식기에서 이루어진다. 제2차 성징을 통하여 남자와 여자의 생리현상과 생식현상이 아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자는 남자다운 신체적 모습으로 바뀌게 되며, 여자는 여자다운 신체적 모습으로 성장하게 된다. 제2차 성징이 나타난 이후부터는 성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징후이며, 생식작용과 생리작용의 성숙에 의해 자녀의 잉태가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생식기관의 구조와 작용을 보아 생식기의 첫 번째 존재목적은 자녀를 출산하는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출산의 일은 곧 성윤리와 직결된다. 자녀의 출산이란 부모의 자신의 확장이며 제2의 자아가 탄생되는 것이다. 자녀의 탄생이란 부부의 사랑의 열매이며 윤리적 성행위와 성관계의 결과이다. 부부의 사랑과 윤리적 성행위의 결과는 임신-출산-양육으로 이어지게 되며, 부부(夫婦)는 ‘자녀의 부모(父母)’라는 타이틀이 주어진다. 그러므로 부부의 성행위와 성관계란 부모 될 가능성의 준비와 양육의 조건을 갖추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성기관의 존재목적은 자녀출산을 위한 부모의 역할과 책임, 즉 양육의 책임을 다할 때 그 목적이 실현되는 것이다. 만일 성행위결과 임신이 되더라도 출산에 대해 책임지고자 하는 자세와 부모로서의 역할 책임을 인수할 준비가 없다면 임신은 출산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낙태로 종결지어질 가능성이 크다. 혹은 출산으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양육의 조건이 미비하여 정상적인 부모로서의 양육이 불가능하다면 그 아이의 생존이 위태롭거나 아이의 인생의 미래가 불투명하여 어두운 일생을 살아가게 하는 불행을 만들게 된다.

그러므로 다양한 성행위나 성관계는 출산에 대한 윤리적 책임이 수반하는 행위이므로 성적활동에 대한 규범으로 규제할 수 있고 보편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성윤리의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무책임한 낙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의도적 무자녀가족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성기관의 존재목적 중에서 출산의 당위적 의무에 대한 성윤리의 기준이 정립되어야 할 과제가 주어진다.

2. 사랑의 완성

남녀의 생식기는 함께 보았을 때 그 존재의 필요성과 목적이 사랑을 키워나가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남자의 생식기는 남자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자와 함께 성행위나 성관계를 통하여 사랑을 성숙시키기 위해서이고, 여자의 생식기 또한 남자의 생식기와 조화를 이루어 하나 되기 위한 것이다. 즉 남녀의 생식기가 다른 모양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목적은 서로를 차별해서 공격하거나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협조적이며 상호의존적으로서 조화롭고 통일된 사랑의 상호작용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남녀의 성행위는 부부성관계의 쾌락을 즐기도록 창조주가 특별한 선물로 인간에게 주신 것이다.³¹⁾ 동물은 발정기 때만 교미를 할 수 있어서 자동적으로 성욕구를 조절하지만 인간은 언제라도 부부간에 사랑과 성을 즐기도록 구조되어 있다. 그러나 인간의 성적쾌락이란 쾌락을 추구하면 할수록 쾌락의 만족에서 멀어지는 역설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쾌락의 이런 현상을 쾌락주의의 역설(paradox of hedonism)이라고 한다. 성적인 쾌락에 탐닉하면 할수록 더욱 강렬한 쾌감을 원하게 되어 원하는 만큼 만족에서 멀어지게 된다. 쾌락적 감성은 순간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행위를 쾌락에 한정시키면 시킬수록 더 큰 공허감과 불쾌감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인간은 더 크고 색다른 쾌감을 찾기 위해서 다른 이성에게 관심을 돌릴 수 있게 된다. 쾌락을 추구하는 삶은 자신의 쾌락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상대를 자신에게 쾌감을 주는 성적도구로 여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혼전순결이나 결혼 후 정절의 덕을 구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쾌락추구의 성행위나 성관계는 순간의 쾌감을 위하여 영원한 사랑을 놓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부간의 성행위나 성관계를 통한 성욕구의 충족은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는 것보다 부부간의 신뢰감을 토대로 하여 친밀감을 돈독히 하고 사랑을 키워가는 촉진제 역할로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랑을 키워가는 성은 원존재를 닮은 인간다운 성이며 인격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 개개인은 개성진리체로서 각기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사랑이란 타인격의 가치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여 상대를 위한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 이러한 희생의 첫째 조건은 순결을 지키는 것이다. 혼전순결을 지킨다는 의미는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서 어떠한 쾌락적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인내하며 자신의 성욕구를 극복했다는 상대를 향한 신뢰감을 주는 것이다. 혼전순결을 기반으로 결혼 후의 부부관계는 서로 돈독한 신뢰감에서 정절을 지켜나가게 된다.

부부성관계에서 상대를 사랑하기 위한 윤리적 조건은 상대방을 나와 마찬가지로의 인격으로 존중하여 서로 정절을 지키는 것이다. 상대도 나와 마찬가지로의 개성진리체로서 하나님 이 확대된 신성한 인격체임을 인정하여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한 배우자로서 정절의 토대

31) 문선명, 『우주의 근본을 찾아서』 (서울: 성화사, 2007), 15.

위에서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대의 생각, 의지, 욕구, 감정을 무시하는 외도를 하면서 상대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문선생의 가르침 가운데 “성기관의 주인은 배우자”³²⁾라는 강조는 혼전 순결과 혼 후의 정절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 부부 성관계에서 배우자를 나의 성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적 대상이 아니라 원존재의 확대된 나 자신과 마찬가지로의 인격체로서 완성을 향하고 있는 목적적 대상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더 나아가서 원존재를 닮은 원존재의 목적적 대상으로서 신성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서 인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참사랑은 인격존중을 넘어선 헌신과 희생을 요구한다. 자기 헌신과 희생이 동반되지 않는 한 서로 인격을 존중하는 성관계라 하더라도 그것은 상호존중의 성적거래나 계약적 성행위에 머무를 수 있다. 사랑 있는 성은 상호존중의 의무를 기초로 한 서로의 헌신과 희생에 의해서 일체감을 느끼며 사랑이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3. 혈통의 보존

성기관의 또 다른 목적, 혈통보존은 성기관의 네 가지 작용 중에서 생명의 작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생명의 작용이 신체적 성장변화와 임신-출산-양육에 초점이 맞추어진다면, 혈통의 작용은 출산 후 양육과 넓게 확대된 종적, 횡적의 인간관계에 초점이 주어지게 된다. 성기관의 구조와 기능은 출산을 통하여 부모, 자녀, 형제자매의 가족을 형성하며 더 나아가서 친족과 나라가 형성되며, 세계로 확장되어 세대가 보존되고 아울러 역사가 존속되는 혈연관계를 결속시키는 작용이 있다. 핵가족시대에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혈통적 인연에 대하여 말할 때, 부모, 형제, 자매관계로서 거의 한정 짓고 직접적인 양육에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혈통적 작용에 대한 설명은 혈통으로 맺어진 직접적인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친족, 종족, 국가, 세계, 천주까지 확대하여 하나의 혈연관계로 이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혈통보존 작용의 이해는 성기관의 존재목적이 가까운 친족과 종족보존뿐만 아니라 인류전체 역사를 존속시키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여자나 남자, 하나의 성만 있다면 혈통이 이어지지 않으므로 일 세대에서 끝나게 되어 변화발전이 없어서 인류역사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생식기의 구조가 두 가지의 성, 남자와 여자의 다른 성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서로 다른 인간의 성이 조화를 이루어 협력해서 전체가 공존 공생하기 위한 것이다. 생식기가 두 성으로 각기 다른 구조로 존재한다는 것은 원존재를 닮아서 양, 음의 실체관계로 존재하는 것이다.³³⁾

32) 문선명, 『말씀선집』 279권, 222쪽. 문선생은 생식기의 주인이 서로 엇바뀌어 있다고 설명한다. 남편의 생식기의 주인은 부인이며, 부인의 생식기의 주인은 남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여 서로의 인격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혼전 순결과 혼후 정절의 당위성이 강조된다.

부부간의 성 결합은 양성간의 유전자결합을 통하여 유전적 다양한 개성을 창조함으로써 변화 발전하는 다양한 환경의 유전자 적합성을 증대시키고 자손의 생존가능성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³⁴⁾라고 윌슨(willson)이 진술한 대로 생식기의 작용은 성관계를 통하여 유전적 다양성을 창조함으로써 가족의 특성과 다른 종족을 보존하고 인류의 존속을 가능하게 한다.

성기관의 작용은 성행위의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다는 결과를 낳는다. 인위적인 통제가 없이 일정한 조건이 맞다면 성행위의 과정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으로 결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모든 성행위는 그것의 자연적 결과로서 새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생식기의 새 생명 탄생을 목적으로 하는 구조와 작용은 원존재가 원존재의 창조성을 인간에게 상속한 위대한 창조적 가치를 인간이 실현한다는 의미이다. 원존재가 인간을 그의 자녀로 창조하여 원존재 자신을 인간에게 확장시킨 것을 인간은 자신의 자녀를 탄생시킴으로써 자신이 자녀를 통하여 확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존재를 확장시킨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온 인류는 하나의 원존재 아래 하나의 형제자매요, 한 가족이요, 한 핏줄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문선명 선생님의 가르침 가운데 인류는 “하나님 아래 인류 대가족”³⁵⁾이라는 명제는 이러한 이유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생식기의 가치가 얼마나 신성하고 고귀한 것인가를 알게 된다. 그러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성욕구의 쾌락을 즐기기 위한 성적 방종을 행하는 도덕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개개인이 성기관의 가치와 존재목적을 깨닫게 하는 성윤리의 기준을 설정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4. 양심의 작용

존재세계의 모든 존재는 그 구조가 존재의 목적에 맞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존재목적을 실현하는 고유의 존재방식을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생식기의 구조와 작용은 그 생식기의 존재목적을 이루기 위한 존재방식이 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의 구조나 작용은 음성을 크게 확대하여 큰소리를 만들어서 대중이 들을 수 있게 하는 목적이 있다. 마이크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정해진 사용방식이 있다. 마이크는 사람이 음성을 확대하는 목적으로 사용해야지 다른 용도로서 사용하면 고장이 나게 된다. 마찬가지로 생식기의 구조나 작용은 위에서 소개한 대로 자녀를 출산하거나, 부부의 사랑을 키워가는

33)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원리강론』 (서울: 성화출판사, 1966), 122.

34)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원리강론』 (서울: 성화출판사, 1966), 123.

35) 문선명 선생의 가르침은 인류 전체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의 혈통관계로 이해하며 전체인류를 하나님을 종적 참부모로부터 창조된 대가족으로 설명하고 있다.

목적이 있다. 또한 성기관의 작용은 가족과 종족, 그리고 인류를 존속하게 하는 혈통보존의 목적이 있다. 생식기의 사용은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적합한 방식이 있다. 적합한 생식기의 사용방식이란 혼전 순결, 혼후 정절을 토대로 성의 네 가지 작용을 구현하는 것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일사상에서는 모든 존재의 존재방식이 자연법칙과 가치법칙을 벗어나서 존재, 작용, 번식, 발전하는 존재는 없다고 강조 한다³⁶⁾. 만일 이러한 법칙을 벗어나게 된다면 존재는 소멸되거나 가치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다. 특히 인간의 성은 성의 가치법칙과 자연법칙에 따라 성행위, 성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인간이 가치법칙이나 자연법칙을 벗어난 성행위나 성관계를 이루면 가장 먼저 양심이 잘못된 성행위임을 알고 인간 스스로 고통과 갈등, 그리고 아픔을 겪게 된다. 인간의 성이 가치법칙과 자연법칙에 따라서 작용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양심이 그렇게 작용하기 때문이다.³⁷⁾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결혼한 부부가 외도를 하게 되면 자신의 배우자에게 숨기려고 한다. 그것을 배우자에게 자랑스럽게 들어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양심작용에 의해 자신의 외도가 성규범을 벗어난 것을 알기 때문이다. 통계에 의하면 혼전 동거하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자신의 동거를 남이 아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자신의 동거의 삶을 숨기려고 하고 있다. 또한 미래의 배우자가 동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결혼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70% 이상 차지하였다.³⁸⁾ 이러한 통계를 보면 결혼한 배우자 외의 성행위나 성관계는 양심이 원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통일사상에서는 양심작용에서 벗어난 인간존재는 없다고 말한다. 인간은 원존재를 닮아난 로고스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성과 법칙을 벗어난 행위를 하게 될 때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된다고 설명한다.³⁹⁾ 인간의 마음구조가 생득적으로 양심에서 벗어난 행위를 할 때 가책을 받도록 그렇게 구조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스스로를 정당화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다. 성기관의 존재법칙을 통한 양심작용은 일반적으로 자신이나 타인과의 약속을 어기거나 남에게 잘못을 저질러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과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성기관의 법칙을 어기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상대를 속이고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양심의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성기관의 존재법칙은 인간 삶의 생사문제를 결정짓는 갈림길을 제시한다. 성기관은 인간이 성기관의 법칙을 지키고 사느냐 어기고 죽느냐 하는

36)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 160쪽.

37) 문선명선생은 인간의 양심작용에 대해 강조하며, 양심이 인도하는 대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통일사상에서는 양심과 본심을 구별하여 양심은 상대적 가치를 중시한 마음의 작용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문선생이 지칭하는 양심은 통일사상에서 말하는 양심과 구별되어 사용한다. 이는 통일사상에서 말하는 본심작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38) 스포츠조선과 결혼정보회사, 2007년, 선우가 20-30대 미혼남녀, 5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위와 같이 나타났다.

39)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 247-249쪽.

이정표이다. 즉 인간이 성기관의 존재법칙을 잘 지키고 평화로운 천국을 이루는가? 아니면 그 법칙을 어기고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지옥을 이루는가? 라는 선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성행위나 성관계는 새로운 생명의 잉태와 혈통적 문제가 연결되어있으며 사랑의 문제가 얹혀져 있기 때문이다. 사랑의 성질이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한 속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성질을 벗어난 성행위나 성관계는 법칙을 범한 행위자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에게 영원한 고통과 아픔을 안겨주게 된다. 뿐만 아니라 만일 법칙을 벗어난 성관계에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어 낙태가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생명이 죽음이나 삶이나 하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속절없이 죽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잉태된 아이를 출산한다는 것은 준비된 환경에서 양육되지 못하므로 그 아이의 일생은 불행과 고통의 연결고리 안에서 일생을 지내게 만드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성기관의 존재법칙에 따른 양심작용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변명에 맞도록 합리화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절대 절명의 작용인 것이다.

위에서 논의한대로 성기관의 존재구조와 작용은 네 가지의 분명한 존재목적들을 말해주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존재하는 존재방식, 가치법칙은 누구나 수용 가능한 보편타당한 윤리적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IV. 성윤리기준

통일사상적 윤리기준을 말하려면 먼저 기존의 다양한 성윤리해석들의 입장을 검토해보고 각각의 특징과 한계를 살펴본 다음 이들의 입장을 분석 정리하여 보편적으로 수용 가능한 성윤리기준의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1. 종래의 성윤리의 특징

위에서 언급한대로 일반적 성윤리의 담론은 크게 보아 두 가지 관점의 이상적 성윤리와 도덕적 성윤리가 있다. 이상적 성윤리는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가 대표적으로 주장하여 성적 활동의 선과 덕의 관점에서 보고, 도덕적 성윤리는 칸트 철학에서 도덕적 의무의 관점에서 논의하는 성윤리가 있다. 벨리오티(Belioty)에 의하면 이상적인 성윤리는 최대 도덕에 가까운 성적 활동에서 칭찬과 권장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⁴⁰⁾고 보며, 도덕적 성윤리는 성적 활동이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나 기준을 제시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도덕적인 성은 허용과 금지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40) 레이몽 A. 벨리오티. 구승희 역, 『Good Sex: 좋은 섹스란 무엇인가?』, 2000. 75쪽.

좀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 관점의 이상적 성윤리와 도덕적 성윤리의 특징을 살펴보겠다. 이상적 성윤리는 성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견해가 대립된다. 성적 활동의 가치를 생식가치(자녀출산), 쾌락가치, 인격가치들 간의 관계의 서열에 따라서 어느 가치에 배타적 우선성을 부여하거나 혹은 성의 가치들을 서열을 정하여 고려하거나 이 가치들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성담론을 전개한다.

즉 성의 본질적 가치를 쾌락에 두는 가치관이 보는 시각은 최고의 쾌락을 가져오는 성이 이상적인 성이라고 쾌락에 초점을 맞춘다. 이에 비해 사랑이 성의 본질이라는 가치관이 보는 견해는 사랑이 있는 성은 이상적인 성이고 사랑이 없는 성은 나쁜 성이라고 말한다. 이 입장은 사랑의 가치실현을 위해 인격 존중의 의무와 헌신과 희생의 덕을 강조하고 성관계에서 인격의 통합성을 강조한다.⁴¹⁾ 다른 한편, 생식가치를 중심으로 가치서열을 정하는 가치관의 견해는 생식을 위한 성과 양육을 위한 성은 이상적인 성이고 생식과 무관한 성은 나쁜 성이다. 또한 완전주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의 관점은 출산, 쾌락, 사랑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온전히 실현하는 것을 이상적 성이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이상적인 성은 가치관에 의해 이상적 삶의 형식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이상적 성윤리의 기준은 사랑과 인격적 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상적 성에 대한 보편적 합의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현대사회의 다원주의적 특징이 보편적으로 수용 가능한 이상적 성윤리를 정립하는 일은 어렵고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⁴²⁾ 더 나아가서 현대 성윤리학자들의 견해가 이상적 중심의 성윤리는 성적 활동의 모범을 정립하고 그것을 따르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준수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성인군자들이나 가능하다고 보아 이상적 성윤리는 적절하게 사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견해가 압도적이다.

도덕적 성윤리의 기존의 이론들도 대체로 결혼과 출산 중심의 성윤리, 쾌락과 계약중심의 성윤리, 사랑중심의 성윤리 등의 세 가지 입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결혼과 출산 중심의 성윤리는 성의 자연적 목적을 출산이라고 보고 출산에 기여하는 것이 가치 있는 성행위라고 본다. 아울러 성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성의 안정성을 중시하여 결혼에 의한 성을 강조한다.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가 성의 자연적 목적을 출산에 둔 대표적 학자이다.⁴³⁾ 출산 중심의 도덕적 성은 성행위나 성관계가 임신-출산-양육으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성의 결과로서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결혼이라는 틀로 제한시키는 것이라고 말한다. 안정적인 자녀양육의 조건은 결혼한 가정 내에서만 온전히 갖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이견을 제시하는 학자는 윌슨(Willson)으로서 성적 활동은 이차적으로 결합장치로 간주해야 하고 단지 부수적으로 생식수단으로 여겨야 한다고 주장한다.⁴⁴⁾

41) 류지한, 『성윤리』, 2002, 43쪽.

42) 존 스튜어트 밀, 김형철 역, 『자유론』 (서울 : 서광사, 1992), 34쪽.

43) Mappes, Thomas A. *Social Ethics: Morality and social policy*, 1992, 28쪽.

둘째로 쾌락과 계약중심의 성윤리는 성의 중심 가치를 쾌락으로 본다. 쾌락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으므로 성적 쾌락의 추구가 목적이 된다. 이 입장은 자유주의 성윤리이다. 이들의 주장은 성은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즐거움을 추구하는 하나의 활동이고 정당한 도덕규칙이나 원리를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성적 활동도 도덕적으로 수용 가능한 것으로 본다. 밀(Mill)은 그의 저서 『자유론』에서 “타인에게 해악을 주지 않는 한계 내에서 최대한의 성적 자유이다.”라고 주장한다.⁴⁵⁾ 이들의 원리는 ‘해악금지의 원리’와 ‘자율성 존중의 원리’가 결합되어있다.

셋째로 사랑중심의 성윤리는 사랑을 성의 기준으로 제시한다. 사랑 있는 성은 도덕적으로 옳고 사랑 없는 성은 도덕적으로 그르다. 이들은 사랑만이 인간의 성의 고유한 가치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만들어준다고 강조한다. 존 헌터(Jhon Hunter)와 로저스 크루턴(Rojous Cruern)은 사랑 있는 성은 타 인격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자아 실현과 인격의 완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사랑 없는 성은 인간을 짐승 또는 그 이하의 존재로 전락시키고 인격의 파편화를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사랑중심의 성윤리는 성적 자유와 성적 책임을 사랑으로 절충한다는 점에서 중도주의 성윤리라고 한다.⁴⁶⁾

넷째, 또 다른 도덕적 성윤리의 견해는 다양한 도덕적 성윤리의 입장에 대해 한계를 지적하면서 인간의 성적 활동은 행위와 관계의 두 측면으로서 성행위에 대한 것은 ‘책임의 성윤리’로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요구할 것을 강조하고, 성관계에 대한 것은 ‘존중의 성윤리’기준을 제시하여 서로 존중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상적 성윤리에서는 ‘사랑’과 ‘인격의 덕’을 성윤리기준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요구이므로 사랑의 전제조건인 존중을 도덕적 성의 기준으로 요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⁴⁷⁾ 도덕적 성윤리는 책임에 대한 세 가지 의무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성행위를 통해 성행위 당사자들은 제3자나 사회에 해악을 끼쳐서는 안 된다. 둘째, 성행위의 나쁜 부수적 결과를 낳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기울여야 한다. 셋째, 성행위결과 가능한 좋은 결과를 갖도록 노력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사전행위책임중심의 성윤리’를 주장한다. 성관계에서 존중은 성관계대상을 수단적 존재로 보지 말고 목적적 존재로 대해야 한다는 요구이다. 즉 성관계에서 인격을 존중한다는 것은 인격을 대상화하지 않으면서 강제, 기만, 착취가 없는 상태에서 상호 자발적인 동의로 성적 욕망을 호혜적으로 충족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칸트(Kant)가 단순히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존중하는 공적 의무로 구분해야한다는 주장으로부터 성윤리를 적용한 것이다.

44) 에드워드 월슨. 이한음 역. 『인간본성에 대하여』. 2000, 70쪽.

45) 존 스튜어트 밀. 김형철 역. 『자유론』. 1992, 36쪽.

46) Mappes, Thomas A. 위의 글, 1992. 32쪽.

47) 류지한은 그의 성윤리 책에서 보통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수용가능한 성윤리의 기준으로 성행위의 책임론과 성관계의 존중론을 제안하고 있다.

2. 종래의 성윤리의 한계

종래의 다양한 성윤리는 크게 둘로 분류되어 이상적 성윤리와 도덕적 성윤리로서 성담론을 이야기하고 있다. 첫째, 종래의 성윤리의 한계점은 위의 모델성, 절대성에서 언급한 대로 성담론을 이상적 성윤리와 도덕적 성윤리를 분리하여 인류의 보편적인 성윤리 기준을 제시하려고 시도한 점이다. 인간의 성은 하나님의 확대된 성이므로 성윤리적 기준을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다. 원존재의 성은 가장 이상적이며, 근원적인 모델적 성이다. 원존재 안에 사랑과 덕의 기준이 있으며 도덕의 기준이 통합되어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의 성 역시 ‘이상적인 성’과 ‘도덕적인 성’을 분리하여 그 기준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은 성개념을 새롭게 이해하게 될 때 그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인간의 이상적 온전한 성의 가치를 ‘출산, 쾌락, 사랑’의 세 가지 가치에 한정시켰다는 것은 인간의 성 가치를 축소시켰다는 한계가 있다. 이것은 성윤리에서 빼 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작용으로서 양심작용의 가치를 간과하였다. 그리고 쾌락을 성의 목적적 가치로 두었을 때 파생되는 문제를 간과한 것이다. 인간의 성은 원존재의 로고스적 속성을 닮았기 때문에 규범적 존재로서 자기 스스로 선의 정당성을 확인하며 살아가고 있다. 개개인은 자신의 어떤 생각이, 행위가, 혹은 관계가 옳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참된 것인지 스스로 판단하는 판사(양심작용)를 각자가 자기 자신 안에 두고 삶의 나침반 역할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 자신이 잘못을 저지르고 자신을 아무리 정당화, 합리화하려고 노력해도 양심은 자신의 행위가 올바른 것인지 그 반대인 것인지를 알고 있다. 문선생의 가르침 가운데 ‘양심은 하나님보다 앞서 있고, 스승보다 앞서 있고, 부모보다 앞서 있다’⁴⁸⁾고 강조하고 있다.

셋째, 종래의 이상적 성윤리에서 출산, 쾌락, 사랑의 세 가지 성가치들 가운데 어느 특정한 가치를 성의 본질적 가치로 여기며 성의 가치를 편향적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이상적 성윤리 성격을 왜곡시키고 있다. 이상적 성가치가 어느 한 가치 만을 강조한다면 편중된 시각의 성윤리 자체는 이상적 성윤리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느 한 가치, 즉 출산이나, 쾌락이나 사랑의 가치만을 중시하고 성 활동을 전개한다면 인격의 균형과 조화, 그리고 통합된 성행위나 성관계를 어렵게 만들게 하는 제한점이 있다.

넷째, 종래의 성윤리학자들은 다원주의적 사회에서 이상적 성윤리는 지나치게 모범적으로 성윤리기준을 정립하여 보통사람들이 그 기준을 따르기 어려우니까 타협점을 만들어서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도덕적 성윤리를 일반화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48) 문선명, 『평화메시지Ⅴ. 섭리적 관점에서 본 3대 주체사상』 『평화환경』(서울: 성화사, 2007), 278쪽. 문선생은 양심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거나 행위로 표현하는 내용들을 누구보다 가장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알고 심판하기 전에 이미 자기 스스로 옳은 것과 옳지 못한 것을 양심이 판단하여 알고 있다고 설명한다.

‘보편성’이란 의미를 잘 못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 대중의 많은 숫자의 인간들이 수용한다면 그것이 보편적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적은 숫자의 인간이 어떤 원칙적 기준에 따르면 그것은 보편적 원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인가? 보편성이란 수용하는 일반 대중의 숫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문화, 사상, 시대, 지역, 인종을 초월하여 어느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원리가 ‘보편성’의 의미이다. 보편적 성윤리기준에 미칠 수 없는 개개인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성윤리의 이상과 원칙은 변할 수 없는 것이며, 시간을 두고 교육을 통하여 원칙의 기준에 도달하도록 계도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상적 성윤리의 기준을 보통사람들에게 맞추어서 타협점으로 내려오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보편적 기준에 인간의 성의식과 성활동이 도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도덕적 성윤리는 책임과 존중의 의무를 성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랑 없는 성, 출산과 무관한 성, 결혼과 무관한 성이라도 책임과 존중의 의무를 다하는 한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한 성으로 보고 있으며, 반대로 사랑이 있고, 출산과 결혼의 틀 안에 있으며, 동의에 의한 성이라도 무책임한 성과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성은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 관점에서 보면 생식이 불가능한 동성간의 성적 활동이라도 동성애자들이 상호 존중하고 자신들의 성에 대해 책임 있게 행동한다면 동성애를 금지할 도덕적 명분이 없는 것이다. 도덕적 관점에서는 타인에게 직접적 해악을 주지 않고 사회적 해악을 가져오지 않는 한 동성애는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견해는 도덕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랑의 대상이 동성인가, 이성인가가 아니라 상대에 대한 책임과 존중의 태도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혼전의 성관계도 책임과 존중하는 태도만 있으면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⁴⁹⁾ 그러나 이들은 미성년자들의 성관계는 청소년들 자신에게 해악을 주며, 미혼모나 낙태의 증가로 사회전체에 해악을 주기 때문에 도덕적 성으로 지지되기 어렵다고 말한다.⁵⁰⁾

도덕적 성윤리에서 제안하는 성윤리의 기준이 ‘책임과 존중’이라고 주장하는데 ‘책임과 존중’의 기준이나 범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다. 도덕적 성윤리기준은 자신들이나 사회에 해악을 주지 않고 서로 성의 주체자로서 자율성으로 동의하고 책임과 존중으로 동성애가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동성애는 직, 간접적으로 개인이나 사회에 큰 해악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원존재의 확장이 인간의 성이므로 원존재가 양성, 음성의 조화로운 통일체를 이루는 근원적 존재이므로 그의 확대된 인간은 남녀, 이성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고 통합되는 성관계가 성윤리의 기준에서 허용 가능한 것이다. 동성애자들은 당대에서 끝나버릴 뿐만 아니라 성의자율성과 주체성에 의해 성적 상대를 수시로 바꾸는 해악을 저지르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동성애자들이 종족보존의 기능을 무시하여 인류의 존속과 역사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해악을 저지르고 있다

49) 류지한, 『성윤리』, 2002, 93쪽.

50) 위의 글, 94쪽.

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혼전 성관계도 책임과 존중이 있으면 허용되는 성관계라고 주장하지만 성기관의 존재 목적을 중심으로 볼 때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 진정으로 책임지고 존중하는 태도는 결혼 때까지 상대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이다. 사랑의 속성과 성의 속성이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허락 받는 혼인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상대에 대한 진정한 존중이요, 책임지는 자세이다.

또한 사랑 없는 성, 출산과 무관한 성, 그리고 결혼과 무관한 성이라도 ‘책임과 존중’하는 성이면 도덕적인 성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잘 못 이해하고 있으며 성기관의 존재목적은 모르는 데서 기인한 잘 못된 주장이다. 사랑 없는 성은 단지 자신의 성적 쾌락을 즐기기 위해 상대를 성적 도구적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진정한 존중이라고 볼 수 없으며 상대에게 정신적인 해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상대가 자신의 쾌락을 위한 수단의 대상이 아니라 목적의 대상으로 여겨야 한다는 ‘도덕적 성’이 주장하고 있는 자기모순에 빠지는 주장이 된다.

출산이나 결혼과 상관없는 성은 혼전, 혼후 성행위나 성관계의 허용으로서 자유로운 성행위(free sex)를 조장하는 성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산을 피하기 위한 피임하는 성관계가 완벽한 ‘책임과 존중’의 성관계라고 말할 수 없다. 피임이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는데 100%의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면 만일 임신이 된다면 그 아이는 낙태의 희생자가 되거나 출산이 되더라도 양육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부모에게서 태어남으로써 아이의 양육에 대한 기대가 불투명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낙태라는 해악이 가능하며, 보장받는 양육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이에게 가하는 해악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결혼과 상관없는 성은 결혼이라는 공인된 성관계의 허용된 관계를 무시하는 비도덕적 성이 된다. 결혼의 의미는 부부관계에서 공인하는 성관계를 의미하며 자녀가 출산되면 적출로서 인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결혼을 통해서 인척관계가 공인된 관계로서 시작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결혼과 상관없는 성 역시 사회에서 가족관계의 무질서를 조장하는 해악이 될 수 있다. 진정한 ‘책임과 존중’이 있는 성이란 상대를 원존재의 확장된 존재로서 개성진리체와 연체로서 이해하며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한 목적적 존재로서 성기관의 네 가지의 존재목적에 따라서 상대를 위하고 사랑하는 성이다.

3. 성기관의 존재목적 중심의 성윤리 기준

상론한 바에 의하면 인간의 성은 하나님을 닮은 그의 확대된 성이요, 성의 구성요소에 따른 성행위나 성관계의 작용은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한 속성에 따라서 사랑, 생명, 혈통, 양심의 작용을 하고 있다고 논의하였다. 따라서 인간의 성기관의 존재목적은 사랑완성, 자녀출산, 혈통보존, 그리고 양심작용이 구형운동에 의해 3대권과 4대 사랑의 영역을 형성하

는 가정완성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이상적인 성은 혼전 순결과 혼 후의 정절을 지켜서 절대성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윤리적 기준은 어떤 다른 성윤리, 또는 성행위, 성관계와 타협 불가능한 보편적인 성윤리기준이 되는 것이다. 다원화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보통 인간들이 따를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성윤리 기준과 타협이 필요하다고 볼지 모르나 인간의 성이 사랑, 생명, 혈통, 양심의 작용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구조되어있으며 작용하기 때문에 다른 윤리적 기준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눈이 눈의 구조와 작용에 따르는 방식으로 사물을 보고 눈의 관리를 하고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밝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성욕구를 관리하고 조절하기가 힘들어도 성기관의 구조와 작용에 따라 성기관을 사용해야 궁극적으로 안전하고 자유로운 성기관의 작용이 가능하므로 다양한 성적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절제력이 필요하다. 절제하기 어려운 만큼 기다림 후에 배우자와 만의 성행위와 성관계를 가질 때,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고 신뢰감을 가진 아름다운 인격적 성관계가 가치 있는 것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다원화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으나 성기관의 존재구조와 작용의 원칙을 무시하는 성윤리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인류가 보편적으로 수용 가능한 성윤리 기준은 이상적 모델성, 절대성으로서 ‘사랑완성, 자녀출산, 혈통보존, 양심작용’의 네 가지 작용이 하나로 균형, 조화, 통일을 이루는 구형운동을 전개하여 가정에서 3대권과 4대 사랑권을 형성하는 것이다. 만일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하나의 작용이 부족해도 온전한 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균형을 이루는 인간의 성이 되도록 가정과 학교와 사회공동체에서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V. 결 언

우리사회의 성윤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개인의 올바른 성의식과 성행동을 지도할 수 있는 성윤리의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종래의 이상적 성윤리와 도덕적 성윤리의 특징을 알아보고 그 한계점을 검토하여 성기관의 존재목적을 중심한 성윤리 기준을 제시하고자 논의를 하였다.

이 글의 논의는 통일사상적 시각에서 성이 무엇이며, 남녀의 성을 표상하는 인체기관의 대표기관인 성기관의 존재목적이 무엇인가를 성찰하였다. 또 다른 논의는 종래의 성윤리가 이상적 성윤리나, 도덕적 성윤리의 초점으로서 ‘출산, 쾌락, 사랑’의 세 가지 성적 가치를 내세워서 보통사람들이 지키고 따라갈 수 있는 ‘책임과 존중’의 성윤리 기준을 제시하여 동성애든지 혼전 성이든지 ‘책임과 존중’이 있는 성행위나 성관계는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한 한계점들을 지적하였다.

통일사상적 인간의 성은 하나님의 확대된 자아로서, 인간의 성기관의 구조와 그 작용으로 보아 성기관의 존재목적인 ‘사랑완성, 자녀출산, 혈통보존, 양심작용’의 네 가지의 보편

적 가치의 윤리적 기준을 도출하게 되었다. 개개인이 네 가지의 ‘사랑완성, 자녀출산, 혈통보존, 양심작용’의 성윤리 기준을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한 사랑의 속성에 따라 절대 성, 유일 성, 불변 성, 영원 성을 이루기 위한 순결과 정절을 기초하여 성행위나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개개인의 인격 안에서 사랑, 생명, 혈통, 양심작용이 균형, 조화, 통일을 이루는 구형운동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구형운동을 통하여 3대권과 4대사랑의 영역으로서 사랑 이상가정을 완성해야 함을 논의로서 전개하였다. 각 가정이 이러한 모델적 성, 절대 성을 구현하려면 통일사상적 시각으로 본 성윤리 기준에 대한 내용이 가정, 학교, 사회전반에서 함께 협력하여 꾸준하고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상원, 『성교육/성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출판사, 1999.
- 류지한, 『성윤리』, 서울: 울력, 2002.
- 문상희, 『부모-자녀 함께 이루는 절대성』, 아산: 선문대학교출판사, 2007.
- 문선명, 『우주의 근본을 찾아서』, 서울: 성화사, 2007.
- 문선명, 『문선명선생 말씀선집. 279권』, 서울: 성화사, 1996, 9.
- 문선명, 「평화메시지X V. 섭리적 관점에서 본 3대 주체사상」 『평화환경』, 성화사, 2007.
- 박찬구, 『성적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서울: 담론사, 1997.
- 아리스토텔레스, 최명관 역. 『니코마스 윤리학』, 서울: 서광사, 1988.
-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현대사회와 성윤리』, 제8회 사회윤리 심포지움, 아산사회 복지사업 재단 출판, 1997.
- 에드워드 윌슨, 이한음 역, 『인간본성에 대하여』, 서울: 사이언스북스, 2000.
- 윤가현, 『성문화와 심리』, 서울: 학지사, 1998.
- 윤가현, 『성심리학』, 서울: 성원사, 1990.
- 이순열·배병주, 『중학생을 위한 올바른 성』, 도서출판 한빛, 2000.
-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원리강론』, 서울: 성화출판사, 1992.
- 레이몽 A. 벨리오티, 구승희 역, 『Good Sex: 좋은 섹스란 무엇인가?』, 서울: 민음사, 2000.
-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 통일사상연구원, 1993.
- Hare, R. M, *Freedom and Reas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63.
- Mappes, Thomas A., & Zembaty, Jane S, *Social Ethics: Morality and Social Policy*, 3rd ed. New York: McGraw-Hill, Inc. 1992.
- Moon, Sang Huy, *Pure Love Studies: Origin, Preliminary Outcomes, and Future Direction*, (Dissertation. University of Bridgeport. 2004.)

원고접수: 2009년 1월 22일 1차심사: 2월 1일 게재승인일: 2월 5일

연구자 소개: 문상희

- ① 전공: 신학, 교육학 / 소속: 선문대학교 순결학과 교수
 - ② 관심영역: 교육학, 순결학, 성교육학
 - ③ 주요논저: 「부모-자녀 함께 이루는 절대성」, 「순결학의 이념과 교육내용」, 「가족붕괴예방을 위한 청소년 성교육내용」, 「건강한 가족관계를 위한 심정과 규범의 성가치관교육」, 「모델적 가족체계내의 가족관계」
 - ④ E-mail: sanghuy@sunmoon.ac.kr
-

Abstract

Standards of Sexual Ethics Centered on the Purposes of Human Sexual Organ —From the Perspective of Unification Thought—

Moon, Sanghuy

Sun Moon University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standards of sexual ethics that people can agree with and health sexual attitudes and behavior that people can accept universally. In order to resolve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sexual ethics, we should understand clearly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sexual ethics. This paper focuses on the standards of sexual ethics from the perspective of unification thought. We should search for a standard of sexual ethics and understand the correct meaning of human sexuality and the purposes of the human sexual organs in order to have healthy sexual behavior.

The present points of view of sexual ethics focus on the values of childbirth, sexual pleasure, and love, stressing responsibility and respect to one's sexual partner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xisting sexual ethics, if people have responsibility and respect for their sexual partners, homosexual, premarital and any other kind of sexual intercourse can be acceptable. However, even though these sexual ethics emphasize responsibility and respect to one's sexual partners, sexual problems such as sexual disease and unwanted pregnancies have appeared in our society. Therefore, we should explore ways to have healthy and peaceful sexual lives, and we should propose an alternative for resolving sexual problems.

This paper proposes new standards of sexual ethics in order to guide people's steps in the path of righteousness. The proposed purposes to be recognized as universal values for the human sexual organs are to realize the completion of conjugal love, to create children, to preserve lineage, and to operate of conscience. Accordingly, the standard for sexual ethics is the accomplishment of the four purposes of the human sexual organs. In order to solve the various sexual problems in our society, human beings should search

for the balance, harmony, and unity of the human character based upon the above standards for sexual ethics.

Key words : Standard of Sexual Ethics, Love, Life, Lineage, Conscience, Purpose of the sexual organs, Responsibility, Respect, Pure Love